

##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 북방 선교의 초석

# 제1회 KIMCHI 세미나 11월 2일에 개최

우리 교회의 국제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KIMCHI)이 동구권 목회자 40여 명을 초청하여 준비해 오던 KIMCHI 세미나가 오는 11월 2일 저녁 7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창인 원로목사의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다.

KIMCHI 세미나 기간 동안, 교회 곳곳에서는 국가별 선교 전략 모임과 특별 교육, 성도들도 들을 수 있는 교역자들의 특별 간증 집회가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서울 시내의 몇몇 교회 및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을 방문하

고, 산업 시설과 민속촌 관광을 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이 세미나가 열리는 동안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전개하기로 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여, 속사도 행전운동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시킨 기도의 열기를 이어서, 북한을 포함한 북방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해, KIMCHI 세미나를 위해, 교회·국가·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제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한

한국연구원(KIMCHI)은 계속하여 세계 교역자들로 하여금 자국 전도에 전력하게 함으로써, 선교의 실효를 거두어 세계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91년 5월과 8월에도 세계 교역자들을 선별 초청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각국의 복음화에 필요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시키고, 수료 후의 선교 가능성과 자격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 선교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KIMCHI 세미나”와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자 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도회 별로 하루씩 담당하여 그 날 해 있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

믿음으로 전력 합심할 때 동구권 복음화와 단혀 있는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믿는다. 준비 기도회로 기도의 열기를 모아,

특별 기도회를 통해 나 자신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일어나도록 하자.

| 날 짜    | 담 당        |
|--------|------------|
| 29일(월) | 한 나        |
| 30일(화) | 에스더        |
| 31일(수) | 루디아        |
| 1일(목)  | 마리아        |
| 2일(금)  | 바울         |
| 3일(토)  | 베드로        |
| 4일(주일) | 요한·대학부·청년부 |

### ◆ 동구권 교역자 특별 간증(교회학교 및 남녀전도회)

| 날짜         | 시 간      | 간 증 국 가 | 대 상       | 장 소      |
|------------|----------|---------|-----------|----------|
| 11월 4일(주일) | 오전 10:30 | 체코슬로바키아 | 중 등 부     | 갈릴리홀     |
|            | 오전 10:30 | 루마니아    | 직장전도교육부   | 소식관 514호 |
|            | 오전 10:30 | 유고슬라비아  | 새가정부      | 소식관 201호 |
|            | 오전 11:00 | 불가리아    | 새가족부      | 베다니홀     |
|            | 오후 1:00  | 불가리아    | 요한, 청년1부  | 소식관 602호 |
|            | 오후 1:00  | 체코슬로바키아 | 베드로, 청년2부 | 소식관 514호 |
|            | 낮 12:30  | 헝가리     | 마리아, 장년1부 | 소식관 407호 |
|            | 낮 12:30  | 폴란드     | 루디아, 장년2부 | 소식관 414호 |
|            | 낮 12:30  | 루마니아    | 에스더, 장년3부 | 소식관 314호 |
|            | 낮 12:30  | 유고슬라비아  | 바울, 장년4부  | 소식관 307호 |
|            | 낮 12:30  | 소련      | 소망부       | 갈릴리홀     |
| 저녁 7시      |          | 소련·헝가리  | 전교인       | 본당       |

### ◆ 안내 및 식사 담당

|     | 11월5일(월) | 6일(화) | 7일(수) | 8일(목) | 9일(금) | 10일(토) |
|-----|----------|-------|-------|-------|-------|--------|
| 안   | 목사       | 바울    | 한나    | 베드로   | 마리아   | 목사     |
| 내   | 장로       | 루디아   | 요한    | 에스더   | 대학부   | 안수집사   |
| 식사  | 충현차      | 1, 13 | 3     | 5     | 7     | 9      |
| 루디아 | 만나홀      | 2     | 4     | 6     | 8     | 10     |
|     |          |       |       |       |       | 11, 14 |

### ◆ KIMCHI 세미나 강의 일정

| 날 짜       | 시 간            | 강 의 내 용                       | 강 사      | 봉사(마리아)   |
|-----------|----------------|-------------------------------|----------|-----------|
| 11월 3일(토) | 오전 10:40~12:00 | 한국 교회사 개요(오리엔테이션 2)           | 노봉원 박사   | 오전·후 저녁 3 |
| 5일(월)     | 오전 9:00~10:20  | 영적 갱신과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1)       | 이중운 박사   | 5 1       |
|           | 오전 10:40~12:00 | 영적 갱신과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2)       | 이중운 박사   |           |
|           | 오후 1:30~3:00   | 평신도 전도 운동                     | 권오덕 박사   |           |
| 6일(화)     | 오전 9:00~10:20  | 갱신을 위한 선교(한국의 선교 운동)          | 손영준 박사   | 6 4       |
|           | 오전 10:40~12:00 | 교회 갱신을 위한 교육 선교(주일학교, 기독교 교육) | 주선에 박사   |           |
|           | 오후 1:30~3:00   | 교회 성장 전략들                     | 나일선 박사   |           |
| 8일(목)     | 오전 9:00~10:20  | 개인 갱신을 위한 교회의 기도 생활           | 김준곤 박사   | 8 11      |
|           | 오전 10:40~12:00 | 갱신을 위한 예배                     | 정규남 박사   |           |
|           | 오후 1:30~3:00   | 윤리적 갱신                        | 손봉호 박사   |           |
| 9일(금)     | 오전 9:00~10:20  | 목회 갱신을 위한 신학적 교육              | 조종남 박사   | 9         |
|           | 오전 10:40~12:00 | 갱신을 위한 상담                     | 박성수 박사   |           |
| 10일(토)    | 오전 9:00~10:20  | 갱신을 위한 다락방(소그룹) 운동            | 김상복 박사   | 10        |
|           | 오전 10:40~12:00 | 지역 교회의 역할                     | 김의환 박사   |           |
|           | 오후 1:30~3:00   | 2천년대 세계 복음화 운동                | 토마스 왕 박사 |           |

##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 적극 참여를

### 기도 제목

#### 1. 북방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하여

- (1)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북방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위로와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 (2) 북방의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 (3) 북방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 2. KIMCHI 세미나를 위하여

- (1) 모든 강사의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 (2) 초청된 주님의 종들이 영적 은혜와 지적 충만과 높은 비전을 갖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 (3)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소련을 복음으로 불태울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4) 계속되는 KIMCHI 세미나를 통하여 지구촌 교회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3. 교회, 국가, 가정을 위하여

- (1)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 (2)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조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 (3)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가정 위에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 행동 강령

1. 철의 장벽을 헐기 전 겸손히 내 마음에 벽을 먼저 헐자.
2. 기도 이외에 다른 료가 없다 하였으니 새벽마다 기도하자.
3.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 제10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24일에 제10차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45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15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또 입교를 한 성도는 2명, 개종을 한 성도는 3명이었다.

### 장년 2부 총동원 전도 집회 가져

장년 2부는 지난 10월 21일을 이날은 진자매가 특별히 초대 총동원 주일로 지켰다. 되어 특송을 부르는 순서를 가짐으로써 더욱 은혜로웠다. 장년 2부는 올해 초에 출석 성도가 3백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기도와 전도로써 준비하여 왔다. 21일에는 모두 2백명 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연말까지 3백명 출석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본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요10:30-39)

신구약 성경이 어느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소중히 하는 이유는 이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중대한 교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작은 마을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인 청년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곧이어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을 예측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철이 없거나 청년의 영웅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굉장한 교리와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귀중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 1.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의 뜻은, 첫째로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뜻이 예수님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서도 주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들을 한 생명도 내어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들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과 6장 38절에

도 같은 뜻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고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찰해 보면, 곧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권능, 능력도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이 예수님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2. 신성모독에 대한 논쟁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심한 반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전하셨습니다.

3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눈먼 자를 눈 뜨게 했고, 앉은뱅이를 걷게 했으며, 병어리로 말하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거늘 나를 돌로 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3절을 보면,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믿지만, 그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록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재판장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재판장들에게 어떤 선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은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했던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놀라운 사명을 신의 이름으로 권위와 능력을 그들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머리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신들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절대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게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

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3. 큰 빛과 작은 빛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지만 그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그의 말씀이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은 될지 모르나 구원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이 가미된 신앙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래야만 하는 신앙의 모습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품성과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성 보다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려면 그의 영이 우리를 앞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 우리들은 달과 같이 그 빛을 받아 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세상은 아무리 밝은 빛을 밝혀 놓았다 하더라도 어둠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빛을 밝히 받아야만 이 어둠의 세계에 발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바짝 다가 가야 합니다.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 빛을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 제3회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

# 협력하여 이루어낸 선행

참석 : 노광현 장로 (구제위원장)  
박상준 집사 (준비위원)  
백죽심 권사  
(한나전도회 제3지회 회장)  
전명옥 권사  
(에스더전도회 제3지회 회장)  
김정희 집사  
(루디아전도회 제12지회 회장)  
전은실 집사  
(마리아전도회 제7지회 회장)  
진행 : 김광신 장로 (편집국장)



김광신 :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20일에 있었던 바자회는 순수익이 1억 7백 39만 2천 950원이 되어, 우리는 1억이라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성공적인 바자회를 치르었습니다.

노광현 : 목표액 1억 원을 설정하고 처음에는 주변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도 받았고 그래서 걱정도 꽤 했어요. 그러나 불가상승률이나 교인들의 성숙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목표 설정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없이 모두 참여하고 교구가 단합하는 것을 보고 목표달성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광신 :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먼저 성도들의 적극 참여가 뒷받침되었어야 했을텐데요.

박상준 : 이번 바자회에는 우리

리기도 했습니다.

김정희 : 저희 교구는 현금, 기증, 상품 판매가 조화롭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은실 : 저희는 과일 판매 시에, 남전도회 회원들이 생업을

를 깨끗이 닦아 모두 운반하고 베타게광장도 청소하였어요.

김정희 : 마리아전도회 회원 한 분은 낮시간 동안 빈 집에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

화곡동 방면에 사는 7교구 성도들은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 4시에 가락시장으로 가는 열심도 있었어요.

저희 교구 전도사님께서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서 상품 판매에 한 몫 하셨습니다.

김광신 : 내년의 바자회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지요.

박상준 : 여러 교구에서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식당이나 시장과의 긴급 연락을 위해 바자회장엔 전화를 가설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전은실 : 위탁 상품의 경우 수익 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정가 밑으로는 팔지 못해 판매상 어려움도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위탁 판매는 지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노광현 : 인기가 없던 쌍화탕 같은 제품은 빼고, 시장 조사, 여론 조사를 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김정희 : 줄을 이용해서 판매 장소를 정확히 구획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죽심 : 과일류나, 음료수 등 같은 품목은 교구별로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 판매토록 했으면 합니다.

노광현 :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특산품이나 기획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상준 : 장애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전시나 장애인들의 특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기도 했어요.

노광현 : 그러나 이번 바자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 적극적인 봉사와 뜨거운 사랑으로 풍성한 결실 맺어

교회의 7,527 등록 세대가 거의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 5천 장의 전단지들을 배달되는 신문 사이에 끼워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바자회를 찾은 손님 수는 2만 7천 명에 달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품권은 제작한 판 장이 모두 팔렸으며, 각 가정은 기증 상품도 많이 회수했습니다.

김광신 :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세운 판매 전략을 말씀해 주시지요.

백죽심 : 저희 교구에서는 죽을 판매했는데,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5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자면서까지 한 마음이 되어 봉사했어요. 또 리어카를 동원하여 배달해 드

쉬면서까지 나와 배달을 하여 더욱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배달로 인해 육신은 힘이 들었지만, 남나 전도회가 하나가 되는 영적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김광신 : 장애인들을 위해 이번의 수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노광현 : 제3회의 수익금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랑의 집이나 복지마을이 완공되면 그곳에 마련될 시설들을 위한 기금인 것입니다.

김광신 : 바자회 동안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던데요.

노광현 : 파장을 한 후 성도들이 바자회 때 사용한 의자, 탁자

와 이를 동안 꼬박 봉사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핑계로 바자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전명옥 : 지난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3교구의 한 성도는 자신이 재배한 호박을, 호박죽 만드는 데 사용해 달라고 보내오셨어요. 또 오랜 투병 생활을 해 오다가 요즘 들어 많이 회복된 성도도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팔죽 거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전은실 : 인천, 부천, 신월동,

가격 수준이 단일화 되지 않기도 했어요.

바자회 전에 이미 마늘, 고추, 젓갈류를 사 놓는 성도들이 많고 들었는데, 사전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여 성도들이 바자회를 통해 감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백죽심 : 리어카가 많이 부족했는데, 신속한 배달이나 상품 운반이 수익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리어카를 비롯한 운반 도구의 다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 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고 봅니다. 뒷마무리를 잘하고 서로서로 질서를 지키는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교회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김광신 : 장애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바자회를 시작했고,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 직전부 성경퀴즈대회 열어

직전전도교육부는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소석관 514호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다.

출제 범위는 설교 시간과 분반 공부 시간에 공부한 사도행전 전장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따르고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의 1등은 손미란 성도이고, 2등은 홍기준 성도, 3등은 최수진 성도로 은혜로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갔다.

## 성도의 교재

전승훈 집사(제7교구) 영동사 거리에 레크리에이션 기획 사무실 아이템 개업

김광혜 집사(제11교구) (주)우리랜드 판매 사원 모집 (연락처 456-3238~9)

## 영아부 찬송가부르기 대회 가저



영아부는 10월 21일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가졌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1부와 2부로 나뉘어 아현홀에서 개최되었는데 별반, 해반 각 26반씩 총

314명이 참석했다.

급년 초부터 시작하여 저급까지 배웠던 찬송가를 중심으로 대회를 가졌는데 함께 찬송하는 훈련과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배워온 찬송가를 다시 한번 총정리시킨다는 목적에 의해 준비되었다.

석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반에서는 1등-해2반, 2등-해4반, 3등-해7반. 별반에서는 1등-별7반, 2등-별1반, 3등-별3반에서 차지했다.

## 초등 5부 추계 대심방 완료

초등5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계 대심방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많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심방하여 신앙과 가정 환경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심방 보고회 시간에는 교사들의 심방 간증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지도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 91년도 인사 배정 및 각 부서·사무국 편제 변경

## 위 원 회

당회서기: 윤명식 부서기: 이종국

| 위 원 회  | 위 원 장 | 지 도   | 위 원                                              |
|--------|-------|-------|--------------------------------------------------|
| 기 획    | 이 용 선 | 윤 용 규 | 윤명식, 이태규, 박철훈, 김광신, 남선우, 서동석, 박승준                |
| 예 배    | 최 석 주 | 윤 용 규 | 박치민, 김방진, 박용삼, 송환창                               |
| 찬 양    | 오 태 회 | 김 은 태 | 찬양대장 전원                                          |
| 제 1 교육 | 조 선 근 | 정 기 봉 | 부장 전원                                            |
| 제 2 교육 | 김 차 생 | 김 해 규 | 부장 전원                                            |
| 제 3 교육 | 김 영 개 | 김 성 윤 | 부장 전원                                            |
| 교 구    | 손 동 윤 | 최 인 근 | 교구장 전원                                           |
| 전 도    | 우 기 전 | 송 태 근 | 김정철, 강 협                                         |
| 세 계 선교 | 이 영 세 | 김 학 진 | 김영삼, 조인재, 최석주, 김진채, 하대선                          |
| 구 제    | 노 광 현 | 김 창 수 | 문홍구, 윤광일, 김경철, 박주환                               |
| 건 축    | 오 진 국 |       | 박철훈, 윤명식, 이종선, 이태규, 우기전, 오정현, 김광신, 이창호, 최명환, 유운진 |
| 재 정    | 박 철 훈 |       | 최대원, 김광남, 이종선, 이태규, 윤명식                          |
| 행 정    | 이 태 규 |       | 오정수, 박치민, 마성락, 김영길                               |

## 교 회 학 교

| 위원회           | 구 분   | 부 장 | 위원회           | 구 분   | 부 장 | 위원회           | 구 분   | 부 장 |
|---------------|-------|-----|---------------|-------|-----|---------------|-------|-----|
| 제 1 교 육 위 원 회 | 영 아 부 | 김천재 | 제 2 교 육 위 원 회 | 대 학 부 | 이 훈 | 제 3 교 육 위 원 회 | 사 랑 부 | 강모용 |
|               | 유 치 부 | 정광호 |               | 청년 1부 | 강은원 |               | 에바다부  | 조인재 |
|               | 초등 1부 | 김종구 |               | 청년 2부 | 최대원 |               | 탁 아 부 | 정운석 |
|               | 초등 2부 | 엄필성 |               | 장년 1부 | 최명환 |               | 영어교육  | 박용삼 |
|               | 초등 3부 | 오정현 |               | 장년 2부 | 김은호 |               | 유 아 원 | 박인세 |
|               | 초등 4부 | 하대선 |               | 장년 3부 | 마성락 |               | 유 치 원 | 강순용 |
|               | 초등 5부 | 최무길 |               | 장년 4부 | 김원선 |               | 조기교실  | 이종석 |
|               | 초등 6부 | 손경수 |               | 소 망 부 | 김재명 |               | 살롱경로  | 박인세 |
|               | 중등 1부 | 노문환 |               | 직 전 부 |     |               | 대 학   |     |
|               | 중등 2부 | 박영식 |               | 새가정부  | 최상규 |               |       |     |
|               | 중등 3부 | 송기홍 |               | 새가족부  | 강순용 |               |       |     |
|               | 고 등 부 | 최성현 |               |       |     |               |       |     |

## 당 회 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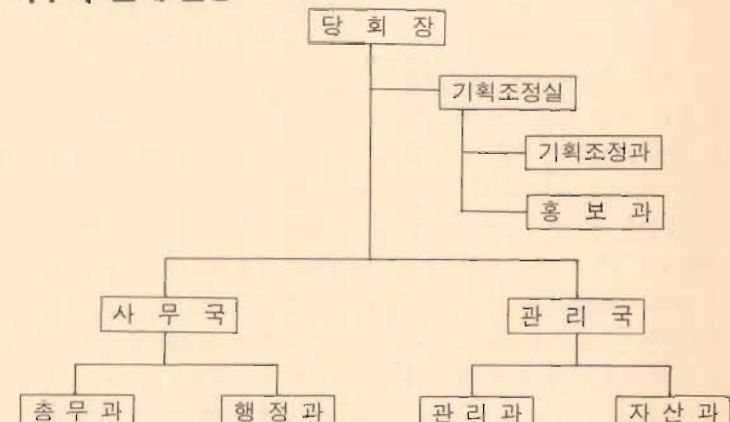
| 위 원 회       | 위 원 장   | 지 도   | 위 원                |
|-------------|---------|-------|--------------------|
| 기 도         | 박 치 민   | 이 세 열 |                    |
| 동 유         | 산 마 성   | 현 정 남 |                    |
| 출 치         | 원 강 순   | 김 연 이 |                    |
| 유 아         | 원 윤 명   | 유 순 화 |                    |
| 장 학         | 회 최 대 원 |       | 이종국, 김광남, 박철훈      |
| 성 경 연 구     | 원 강 은   | 이 조 웅 | 강모용                |
| 한국교회성장연구원   | 김 은 호   | 이 조 웅 | 김재명                |
| 도 서 관       | 김 원 선   | 김 영 구 |                    |
| 상 담 실       |         | 이 두 란 | 정소영                |
| 스 데 반 회     | 윤 명 식   | 김 광 석 | 김여순(회장), 나희주(부회장)  |
| 권 사 회       | 이 용 선   | 최 순 복 |                    |
| 김 치 프 로 그 램 | 정 하 우   | 마 일 수 | 윤인현                |
| 감 지 개 회     | 김 방 진   |       | 박관영, 안익태, 김재균, 서일영 |
| 무 지 개 회     |         | 구 명 신 |                    |

## 각 부서 편제 변경

| 현 편 제 부 서 명      | 구 분     | 변 경 편 제              |
|------------------|---------|----------------------|
| 제 1 교육위원회 산하 대학부 | 변 동     | 제 2 교육위원회 산하 대 학 부   |
| 제 1 교육위원회 산하 중등부 | 학년별 구분  | 제 1 교육위원회 산하 중 등 1 부 |
|                  | 학년별 구분  | 제 1 교육위원회 산하 중 등 2 부 |
|                  | 학년별 구분  | 제 1 교육위원회 산하 중 등 3 부 |
| 유 아 원            | 신 실     | 제 3 교육위원회 산하 유 아 원   |
| 일 어 성 경 교육부      | 신 실     | 제 3 교육위원회 산하 일어성경교육부 |
| 바 울 전 도 회        | 연령별로 구분 | 바울전도회(50세 ~ 59세)     |
|                  | 연령별로 구분 | 모세전도회(60세 이상)        |
| 기 회 실            | 변 경     | 기 회 위 원 회            |
| 찬 양 대            | 신 실     | 배들레헴찬양대(일본어 예배)      |

## 사무국 편제 변경

| 제 직 회      |       |                            |       | 찬 양 대     |       |          |       |
|------------|-------|----------------------------|-------|-----------|-------|----------|-------|
| 서 기: 김 여 순 |       | 부 서 기: 황 의 만, 김 구 형, 나 희 주 |       |           |       |          |       |
| 부 서 명      | 부 장   | 부 서 명                      | 부 장   | 부 서 명     | 부 장   | 찬 양 대 명  | 대 장   |
| 회 계        | 박 철 훈 | 교회학교 1부                    | 조 선 근 | 봉 사       | 윤 광 일 | 가 브 리 엘  | 이 종 석 |
| 예 배        | 최 석 주 | 교회학교 2부                    | 김 차 생 | 경 조       | 김 경 철 | 임 마 누 엘  | 이 창 호 |
| 영 어 예 배    | 박 용 삼 | 교회학교 3부                    | 김 영 개 | 차 량       | 문 홍 구 | 시 은      | 박 용 삼 |
| 일 어 예 배    | 송 환 창 | 교 구                        | 손 동 윤 | 건축        | 오 진 국 | 할 렐 루 야  | 차 신 득 |
| 성 레        | 김 방 진 | 전 도                        | 우 기 전 | 시 설 관 리   | 오 정 수 | 아 멘      | 윤 성 철 |
| 찬 양        | 오 태 회 | 직 능 전 도                    | 정 하 우 | 환 경 미 화   | 김 영 길 | 호 산 나    | 최 봉 숙 |
|            |       | 지 역 전 도                    | 김 경 철 | 동 산 관 리   | 마 성 락 | 실 로 암 벨  | 이 병 학 |
|            |       | 선 구                        | 이 영 세 | 기 도 원 관 리 | 박 치 민 | 오 케 스트 라 | 차 신 득 |
|            |       | 교 제                        | 노 광 현 |           | 고 병 욱 | 크로마하프    | 한 영 숙 |
|            |       |                            |       |           |       | 베 들 레 헴  | 송 환 창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 제 43 과 다섯째 기원

성경: 마 6: 9~13

요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 14, 15)

찬송: 337, 339

제 105 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었은즉, 우리는 더욱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설 명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엡 1: 7).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라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뜻이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질 문

1.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요일 2: 1, 2)?
2.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마 6: 14)?
3.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죄 용서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마 6: 14; 엡 1: 7)?